

# 주일 예배 순서

- 강림절 제4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히브리서 1:1-3.....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 23장(새찬송 23장) .....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새찬송 118번(스크린 참조) .....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길 힘쓰며, 예수님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왕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며 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심을 잊지 않도록 분초마다 저희를 깨우쳐 주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 로마서 1:8-17 .....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 “복음의 능력”

- 봉 헌(offering) ..... 104장(새찬송 104장) .....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 찬 송(Hymn) ..... 377장(새찬송 449장) .....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2. 다음 주일(25일)은 성탄절로 지킵니다. 아울러 송구영신예배가 12월 31일(토) 저녁 8시에 있습니다.
3. 교우동정
  - 한국방문 : 임현정사모가 이번 수요일(21일)에 집안일로 재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 인적 자원들이 잘 공급되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 세계 각국에 이상 기후와 전쟁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 미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 박현숙 성도님

<말씀묵상> 로마서 1:8-17

8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9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서 쉬고 너희를 말하며 10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3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 사도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로 인해 감사한 것은 무엇이며, 그들을 간절하게 보기 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8-12절) 나에게 한마당교회를 생각할 때 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3-17절) 나에게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이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가 취할 행동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혼자만 알고 있기에 너무 좋은 것이기에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죄로 느껴져 모든 이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의 온갖 좋다는 것을 얻고 누리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것은 얻게 되면 전자와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알기에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빛진 자처럼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거듭난 후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심을 입은 그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전하는 자가 없는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신사적인 태도보다는, 그를 살리고자 하는 의사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나는 혹시 복음의 능력보다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